

소쉬르와 『일반 언어학 강의』

— 텍스트와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용호

1. 들어가며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소쉬르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¹⁾ 사실 소쉬르와 읽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촘스키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촘스키를 읽어야 한다는 말은 어딘가 좀 어색한 느낌을 준다. 왜 그러한가? 이런 비유가 적합할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 칸트를 읽는다는 말은 얼마든지 가능해도 아인슈타인을 읽는다는 말은 어딘지 어색하다. 그러나 이런 비유로는 웬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소쉬르의 언어학 역시 촘스키의 언어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이 아닌가? 그렇다면 소쉬르의 경우 역시 ‘읽기’라는 표현보다는 ‘연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실을 지적해 보자. 소쉬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텍스트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텍스트로 존재하는가?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날 왜 소쉬

1) 예를 들어 ‘소쉬르 다시 읽기’는 P. J. Thibaut(1997)가 펴낸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르가 다시 읽히고 있으며, 왜 다시 읽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소쉬르'란 이름의 『일반 언어학 강의』가 갖는 역설적인 운명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쉬르가 “쓰려고 했으나” “쓰지 않은,” 그러나 결국엔 “썩어진” 책이 곧 『일반 언어학 강의』(이하 『강의』)이다. 『강의』의 역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강의』는 여전히 “다시 썩어지고” 있다.²⁾

앞서 간략하게 지적했듯이 소쉬르는 오늘날 텍스트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소쉬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곧바로 제기되는 문제는 텍스트 해석의 문제이다. 바른 해석과 그른 해석의 경계는 무엇인가? 해석의 준거는 무엇인가? 움베르토 에코(1992)의 『해석과 과잉 해석』은 이 물음에 대한 독창적인 답변을 제공해준다. 에코가 제시하는 독서 전략이 소쉬르 읽기와 해석의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먼저 『강의』의 탄생과 소쉬르 문헌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소쉬르란 이름의 『일반 언어학 강의』가 갖는 역설적 운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해결해보고자 에코가 『해석과 과잉 해석』에서 제공한 텍스트 해석의 전략을 자세하게 검토하려 한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소쉬르 해석의 몇 가지 준거들을 제시할 것이다.

2) 발리와 세수애가 1916년 『일반 언어학 강의』를 펴낸 이후 『주석본』(Godel, 1967)과 『비판본』(1968)이 출간되었으며, 각 강의—1차·2차·3차—별로 학생들의 노트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언어학 분야 외에 아나그램과 전설에 관한 소쉬르의 수고 역시 전사되어 책으로 출간되었다. 물론 출판만을 놓고 “다시 썩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진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쉬르에 대한 독서가, 소쉬르의 수고가 보여준 여백을 채워넣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쉬르는 계속 다시 썩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의 역설적인 운명

I. 『강의』의 탄생

소쉬르는 1894년 그의 제자이자 동료인 프랑스 언어학자 앙투안 메이에 Antoine Meillet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언어학의 면면을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비록 더 이상 언어 일반을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상용어의 절대적인 무능함, 언어 일반이 어떤 종류의 대상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과 개혁의 필요성은 역사에 대한 나의 즐거움을 망쳐놓았습니다. (Godel, 1957, p. 31)

곧 이어지는 문구에서 소쉬르는 이러한 비판의 근본적인 이유를 피력할,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힌다.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권의 책으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아무런 열정이나 정열을 가지지 않은 채, 왜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용어도 존재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Godel, 1957, p. 31)

“역사에 대한 즐거움을 망치게 한” “언어 일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이 ‘책’의 제목을 상상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강의』의 역설적인 운명은 소쉬르의 이런 예언자적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메이에에게 보낸 편지」 이후 정확히 17년이 지난 1911년, 일반 언어학에 대한 그의 세 번째 강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의 강의를 청강했던 한 학생—고티에 Gautier—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 학생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게 된다.

(나는 그에게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글로 작성했었는지를 질문했다.) 그렇지요. 나는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뭉치 속에 파묻혀 잃어버렸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무엇인가를 출간해야 할 것을 넌지시 비추었습니다.) 저기에 (그는 몸짓을 하였다) 출판되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출판을 위해 오랜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Godel, 1957, p. 30)

“언어학에서 사용된 용어 가운데 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용어도 존재하지 않은지”를 밝힐, 한 권의 ‘책’에 대한 구상은 위의 대화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래 전에 포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판되지 않은 많은 작업들을 저기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제네바의 거장은 1913년 세상과의 이별을 고한다.

「대화」 이후 5년이 지난 1916년 “그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일반 언어학 강의」란 제목의, ‘언어 일반’에 관한 한 권의 ‘책’이 그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발리 C. Bally와 세수에 A. S. Chehay에 의해 출간된다. 「강의」서평에서 메이에(1916)는 스승이 “쓰지 않았으며 쓰지 않았을 이 책”에 대해 경의를 표한 바 있다(Normand, 1978, p. 163). “쓰지 않았으며 쓰지 않았을,” 그러나 결국엔 ‘쳐어진’ 책이 바로 「일반 언어학 강의」이다. 책에 대한 구상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현되었으며 또한 성공을 거두었다. 구조주의와 더불어 시작된 「강의」의 역사는 구조주의가 막을 내린 뒤에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문제로 존재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쉬르는 언어학적인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³⁾ 그의 「강의」는 ‘다시’ 읽히고 있다. “소쉬르로의 회귀”란 표현은 1970년대⁴⁾ 처음 등장해서 1980년대⁵⁾를

3) P. Wunderli(1982), p. 121.

4) J. L. Chiss(1976) 참조.

거쳐 1990년대⁶⁾에 이르기까지, “소쉬르 다시 읽기”⁷⁾란 표현과 함께 일종의 “소쉬르 현상”을 이루고 있다. 왜 ‘다시’ 소쉬르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강의』의 또 다른 역설적인 운명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II. 소쉬르 문헌학

‘소쉬르’란 이름의 『일반 언어학 강의』는 소쉬르의 것이 아니다. 단순해 보이는 듯한 이 사실은 결코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저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책’에 대해 모종의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⁸⁾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소쉬르 문헌학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고텔(1957)에 의해 시작된 소쉬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는 데 마우로(1967)와 앵글러(1968)를 거쳐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분데를리, 예게르Jaeger 등에 의해 풍부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최용호(2000)는 소쉬르 문헌학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pp. 24~31).

1세대: 1세대에 속한 소쉬르 문헌학자들로 고텔(1957), 앵글러(1968), 데 마우로(1967), 아마케르(197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헌은 한편으로 발리와 세수에가 펴낸 『일반 언어학 강의』와 다른 한편으로 그 원자료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노트와 소쉬르의 노트를 대조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텔은 1957년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 수고 원자료」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소쉬르

5) “소쉬르로의 회귀”란 표현은 1985년 언어 기호학 단체 Groupe de Recherches Sémiolinguistiques의 기호학 보고서Actes Sémiotiques의 주제로 사용된 적이 있다.

6) M.-C. Capl-Artaud(1994, p. 16)와 Y. H. Choi(1999) 참조.

7) P. J. Thibaut(1997) 참조.

8) 예를 하나 들어보자. 소쉬르의 강의를 직접 청강할 수 있었던 한 학생은 언어 변화에 대한 스승의 설명과 『강의』의 내용 사이에 모종의 불협화음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CLG/M, p. 354).

의 문헌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데 마우로는 1967년 『강의 주석본』을 펴냈다. 그는 『강의』 주요 문구마다 세세한 주석을 달았는데, 305개에 달하는 그의 주석은 오늘날 소쉬르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가 되었다. 소쉬르 문헌학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스위스의 소쉬르 학자 앵글러에 의해 이루어졌다. 앵글러는 1968년 『강의 비판본』(이하 『비판본』)을 펴냈다. 그는 『비판본』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두 페이지에 걸쳐 6열로 나누고 첫번째 열에는 『강의』 원문을 실었다. 이어 네 열에는 학생들의 노트를 소개하였고 마지막 여섯번째 열에는 소쉬르 개인 노트와 강의 노트를 첨가하였다. 특히 『강의』 원문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강의』와 원자료를 명확하게 대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소쉬르 문헌학의 1세대들은 『강의』와 원자료를 대조한 결과 전반적으로 편집인들의 작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예를 들어 앵글러(1968)는 『비판본』 서문에서 자신의 작업이 『강의』의 대한 “비판”이 아니라 “대조”이며, “반명제”가 아니라 “종합 명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p. 9).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문헌학적 연구의 2세대에 접어들면서 180도로 바뀌게 된다.

2세대: 이 세대에 속한 학자들로 분데를리(1981: 1988: 1990), 예게르(1976: 1978: 1983), 슈테터 C. Stetter(1983: 1992)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강의』와 원자료의 단순한 “대조”에 만족하지 않고 과감한 “비판”을 시작했다. 이들은 소쉬르의 수고에 대한 철저한 문헌 분석을 통해 스승의 참된 사고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시작된 소쉬르 사고에 대한 참·거짓 논쟁은 문헌학적 연구의 2세대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들의 작업은 주로 70년대 중반 이후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1세대와는 달리 구조주의라는 시대적 한계에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에게 소쉬르는 구조주의의 아버지라기보다 창조적 사고의 보고로서 여겨졌다. 분데를리는 현대 언어학적 논쟁의 중

심에서 주제별로 소쉬르를 다시 읽는 참신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세세한 문헌 자료의 분석을 통해 소쉬르의 언어 사상이 통념과는 달리 비역사적 이거나⁹⁾ 반화행론적이지¹⁰⁾ 않음을 입증하였다. 분태틀리의 작업이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면 예게르의 작업은 총체적이며 종합적이다. 그는 소쉬르의 언어 사상을 홀볼트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일의 이상주의적 언어 철학의 전통 속에 귀속시킨다. 결국 20세기 구조주의자 소쉬르는 “거짓”으로 19세기 이상주의자 소쉬르는 “참”으로 재해석된다.¹¹⁾ 분태틀리든 예게르든 이들은 발리와 세수에게 의해 재구성된 『강의』에 대해 과감히 “반명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세대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3세대: 아직 세대를 구분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몇 가지 징후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소쉬르를 다시 읽을 때 더 이상 『강의』에 대한 “반명제”나 “종합 명제”냐가 문제되지 않는다. 소쉬르의 사고에 대해 참·거짓 논쟁을 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소모적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언어학적 논쟁은 구조주의 맥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이런 맥락 밖에서 소쉬르를 다시 읽을 때 보다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요하네스 페르 J. Fehr(1997)의 『페르디낭 드 소쉬르: 언어학과 기호학』, 시몬 부케 S. Bouquet(1997)의 『소쉬르 읽기 입문』, 김성도(1999)의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는 신선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순수한 언어학적 관점이라기보다 철학적 혹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소쉬르를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이런 점

9) P. Wunderli(1990) 참조.

10) P. Wunderli(1988) 참조.

11) 특히 예게르는 참·거짓 이분법으로 구조주의적 소쉬르 읽기에 일침을 가한다. 그에 따르면 관습론적인 관점에서—다시 말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재구성된 소쉬르는 ‘거짓’이며 독일의 관념철학적—홀볼트로 거슬러 올라가는—관점에서 그가 새롭게 재구성한 소쉬르는 ‘참’이다. 아무리 그의 문헌 분석이 세밀하다 하더라도 그의 이런 결론에 대해서 섣뚱 동의하기란 용이하지 않다(최용호, 2000, pp. 79~90 참조).

이 소쉬르 연구의 3세대가 갖는 특징일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약술한 소쉬르 문헌학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왜 이 역사는 「강의」의 또 다른 역설적인 운명을 잉태하게 하였는가? 일반적으로 문헌학적 연구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밝히려는 작업이다. 즉 그것은 하나의 유일한 해석에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려 한다. 반면 소쉬르 문헌학은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고델(1957) 이후 촉진된 문헌학적 연구는 하나의 소쉬르가 아니라, 뷔에스트 J. Wüest(1990)의 지적처럼, “여러 명의 소쉬르”를 출현시킨 것이다(p. 336). “구조주의자 소쉬르”(무냉), “이상주의자 소쉬르”(예게르), “구성주의자 소쉬르”(아마케르), “아나그램의 소쉬르” “전설의 소쉬르” 등 여러 명의 소쉬르가 존재하는데 과연 어느 소쉬르가 참된 소쉬르를 대표하는가? 소쉬르 문헌학의 성과는 역설적이게도 소쉬르의 다양성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소쉬르의 또 다른 역설적인 운명을 관찰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소쉬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명의 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로이 해리스 R. Harris(1992)가 「나의 소쉬르 My Saussure」를 언급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소쉬르는 우리에게 『일반 언어학 강의』의 ‘저자’로서가 아니라 ‘텍스트’로서 존재한다. 바로 여기에서 소쉬르 읽기의 문제가 등장한다. 소쉬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소쉬르 읽기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곧바로 우리는 텍스트와 해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1992)의 『해석과 과잉 해석』을 참조하고자 한다. 그는 이 책에서 해석의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소쉬르의 문헌학자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3. 텍스트와 해석

“텍스트 해석의 기준은 무엇인가?”(p. 47). 움베르토 에코(1992)는 서구 형이상학의 “표준”이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대담하게도 다시 “기준”의 문제를 제기한다. 주어진 텍스트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과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해석의 자유가 준수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세미오시스의 과정은 이론상 무한하다. 의미의 이러한 끊임없는 미끄러짐 속에 이해의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어떤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 ‘토대’ ‘기준’ 등의 용어 대신에 ‘해체’ ‘전복’ ‘패러디’ ‘차연’ 등의 용어가 범람하는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가?

에코는 포퍼 K. Popper의 “반박 가능성의 원리”를 독서의 전략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p. 47).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해석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어느 해석이 잘못된 해석인지 아니면 나쁜 해석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코는 나쁜 해석을 가려내기 위해 “경제성”의 개념을 도입한다(p. 48). 그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대신 몇 가지 예를 통해 설명한다. 기본적인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이 높은 해석이 좋은 해석이요 경제성이 낮은 해석이 나쁜 해석이다. 예를 들어보자. ‘철수는 사자다’란 은유적인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은유는 경제적이다. 철수는 사자이다. 왜냐하면 철수도 사자도 용감하기 때문이다. 이 은유는 철수에 대해 새로운 —용감하다는— 정보를 경제적으로 —용감한 사자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철수는 오리다’란 문장을 보자. 철수와 오리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문장을 발화한 사람이 철수도 오리도 직접 보행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고 하자. 물론 철수

와 오리는 모두 직립 보행을 한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과연 철수에 대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문장은 비경제적이다.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것이 에코의 생각이다. 물론 모든 해석의 문제가 이처럼 명약관화하지는 않다. 우리는 여기서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에코는 『해석과 과잉 해석』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긴 논의를 할애하고 있다.

그가 존 윌킨스 John Wilkins에게서 따온, 한 인디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살펴보기로 하자(pp. 36~37).

이이야기는 한 인디언 노예에 관한 이야기이다. 노예의 주인은 노예에게 무화과가 담긴 바구니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바구니를 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하였다. 바구니 속에는 약 30여 개의 무화과와 개수를 정확하게 적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노예는 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이 갖고 있는 기능 또한 알지 못했다. 심부름을 가는 도중에 허기에 찬 노예는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화과 일부를 먹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바구니를 전달받은 주인의 친구가, 그가 무화과 일부를 도중에 먹은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물론 주인의 친구는 글을 알고 있었고 글에 적힌 숫자와 바구니에 담긴 무화과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 자연히 노예를 의심한 것이다. 노예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주인은 노예에게 동일한 심부름을 시켰다. 이번에도 노예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무화과를 먹으려 하였지만 지난번 일을 기억하고 바구니 속에서 편지를 끄집어내고 바위 뒤에 숨긴 뒤 편지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무화과를 먹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의 친구는 이번에도 자신이 먹은 무화과의 개수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노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편지—즉 문자—가 갖는 고귀함에 탄복했다. (이 이야기는 필자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만약 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인의 원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노예가 살해되고 무화과의 일부가 분실된 채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의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인의 친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자. 물론 이때에도 주인의 친구는 '나머지 무화과는 어디 있습니까?'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무화과 모두를 도둑맞고 바구니와 편지만 강물에 띄워져 50년 뒤 로빈슨 크루소가 사는 한 섬에 당도했다고 하자. 에코는 이때에도 사람들이 로빈슨의 반응을 잘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무화과는 어디 있지?"라고 자문할 수 있을 것이다(p. 38). 에코는 이 예를 통해 문자적 의미의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누가,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 또한 알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저 장난으로 바구니에 편지를 담아 강물에 띄웠는지, 아니면 보다 심각한 사연이 있었는지, 편지에 적힌 무화과의 개수가 무슨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편지의 '문자적' 정보이다.

에코는 이 예를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작용하는 세 가지 의도를 예시하려 했다. 세 가지 의도란 다음과 같다.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 그리고 텍스트의 의도이다. 저자의 의도란 텍스트를 쓴 저자의 생각을 가리킨다. 만약 '10월 17일 신라 호텔에서 신부 ○○양과 신랑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란 전보를 받았다고 하자. 이 텍스트를 작성한 저자의 의도는 명확하다. 즉 10월 17일 신라 호텔에서 신부 ○○양과 신랑 ○○군의 결혼식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문학 텍스트의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소설을 구상하게 된 동기나 의도 등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책의 의미는 저자를 떠날 때 보다 풍부한 결실을 맺게 된다. 더욱이 이미 작고한 작가의 경우 그의 의도를 알아내기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에코는 "경험적

인 저자의 의도”란 개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60).

그렇다면 독자의 의도란 어떤 것인가? 독자는 텍스트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독자는 “읽기”란 행위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일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해석 행위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이다.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독자에게는 텍스트를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코가 “해석의 권리”라고 부른 것이 존재한다(p. 21). 누군가가 예코의 소설 『푸코의 추』에 등장하는 푸코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예코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대답했다(p. 75). 그 이유는 푸코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시계를 만든 레옹 푸코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시계를 프랭클린이 만들었다면 책의 제목은 『프랭클린의 추』였을 것이라는 게 그의 대답이다(p. 7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푸코의 사상과 그의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 사이에 존재하는 유비 관계를 근거로, 『푸코의 추』의 푸코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미셸 푸코를 가리킨다는 해석에 대해 독자의 권리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독자의 권리, 즉 “해석의 권리”는 이론상 무제한적인가? 리처드 로티 Richard Roty와 같은 해체주의자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이런 점에서 아무리 극단적인 해체주의자라 할지라도 동의할 것이다—어떤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코는 이런 회의주의적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걸고자 “텍스트의 의도”를 언급한 것이다. 저자의 의도가 모던의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면 독자의 의도는 포스트모던의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이해의 가능성을 찾던 중 예코는 “텍스트의 의도”를 발견한 것이다.

인디언의 예에서 문자적 의미는 투명하게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의 의도가 “텍스트 표층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p. 58). 독서는 전략적이어야 한다. 예코에 따르면 텍스트의 의도는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진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독서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란 바로 변증법이다. 즉 독자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도의 변증법을 통해 텍스트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에코의 주장이다. 독자는 여러 가지 독서의 가설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어간다. 이런 독자를 에코는 “독자 모델”이라 부른다(p. 38) 독자 모델이란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가리킨다. 이 독자 모델에 상응하는 이상적인 “저자 모델”이 존재한다(p. 60). 저자 모델은 경험적인 저자가 아니다. “저자 모델”은 텍스트의 전략적 구성 그 자체를 가리킨다. 결국 ‘읽기’란 텍스트의 전략적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적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 모델과 저자 모델의 이러한 대화——변증법——를 통해 텍스트의 의도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텍스트의 “투명한 의도”이다(p. 72). 에코에 따르면 이 “투명한 의도”란 다름아닌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를 가리킨다. 독자의 자유에 한계를 지우는 것은 바로 문자의 투명성이다. 에코는 바로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4. 소쉬르 읽기

—해석의 준거

우리는 앞서 오늘날 소쉬르가 텍스트로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곧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소쉬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코에 따르면 텍스트 해석에 세 가지 의도가 개입한다. 하나는 저자의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의 의도이며 나머지 하나는 텍스트의 의도이다. 이 세 의도를 소쉬르 읽기에 적용해보자.

오늘날 소쉬르의 의도를 알기란 불가능하다. 사후 100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의 의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의 의도를 증언해

줄 증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소쉬르는 우리들에게 ‘저자’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는 소쉬르가 직접 출간한 것이 아니다! —로서가 아니라 ‘텍스트’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텍스트의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쉬르의 텍스트는 완성된 텍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텍스트이다. 소쉬르의 개인 노트·강의 노트·학생들의 노트 등 그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파편화되어 있다.¹²⁾ 문자의 투명성은 오히려 그를 읽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여백이 채워지지 않은 채 그의 문자들은 모순을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소쉬르의 모순은 소쉬르 자신의 모순이라기보다 채워지지 않은 여백의 모순이다. 여백을 채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이런 점에서 소쉬르의 텍스트는 읽히기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씌어지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소쉬르 읽기는 처음부터 다시 쓰기였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소쉬르를 읽기 위해, 발리와 세수에처럼 그를 다시 써야 한다. 누군가가 바르게 지적했듯 “여러 명의 소쉬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여러 명의 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독자의 해석이 다른 어느 독자의 해석보다 더 나은지 혹은 못한지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로이 해리스의 표현처럼 “나의 소쉬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찾는다는 것은 다분히 회의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질문에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모색하고자 예코가 지정한 세 가지 의도에 한 가지 의도를 첨가하고자 한다. 이 의도란 ‘역사적인 의도’이다. 텍스트 해석에 있어 역사의 중요성을 예코가 간과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텍스트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지평을 중시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유감스럽게도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의도 속에

12) 학생 노트란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에 대한 강의를 청강했던 학생들의 노트를 가리키며 강의 노트란 이 강의를 준비한 노트를 가리킨다. 개인 노트는 일반 언어학·아나그램·전설 등에 대한 소쉬르의 수고 일체를 가리킨다.

‘역사적인 의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텍스트는 텍스트가 산출된, 그리고 수용된 역사적인 문맥을 떠나 해석될 수 없다. 요컨대 로빈슨 크루소는 전달된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해낼 수 없다. 문자적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경위를 몰라서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의도란 구체적으로 “텍스트 수용의 역사”를 가리킨다. 텍스트는 단지 “하나의” 독자에 의해 읽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코(1992)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자들의 공동체”(p. 61)에 의해 수용되기 위한 것으로 존재한다. “독자”란 단수가 아니라 “독자들”이란 복수가 존재한다(p. 62). 텍스트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텍스트가 어떻게 독자 집단에 의해 수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독자들”이란 “독자 모델”——해석의 가설——로 이상화될 수 없는 역사적인 존재란 점에서 “경험적인” 독자이다. 물론 독자들이란, 경험적인 독자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 집단을 가리킨다. 개인으로서의 독자가 자의적일 수 있다면 집단으로서의 독자는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통제력이란 역사적인 통제력이다. 우리는 예코의 주장대로 최소한 나쁜 해석을 가려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코는 텍스트 해석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텍스트의 투명한 문자적 의도에 호소하였다. 텍스트의 의도는 텍스트의 자유로운 해석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텍스트 수용의 역사에, 바로 이러한 통제력의 일부를 부여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역사는 비판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역사라도 단순히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쉬르 해석의 문제를 재조명해보자.

소쉬르의 텍스트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문맥이란 다름아닌 구조주의다. 구조주의를 떠나 소쉬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득보다 손실이 더 많을지 모른다. 아니 떠난다는 것 자체가 소쉬르 수용의 긴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진배없을 것이다. 물론 이 역사가 진리의 역사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구조주의 역사 또한 왜곡으로 가득 찬 역

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단순히 “거짓”으로 거부할 수 없다.¹³⁾ ‘소쉬르는 구조주의자다’란 명제가 참이나 거짓이냐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명제가 다른 어떤 명제—예를 들어 소쉬르는 이상주의자다—보다 소쉬르의 사상을 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명제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소쉬르와 구조주의와의 관계를 허구로 단정하기보다 불충분한 관계로 이해하려 한다. 소쉬르에 대한 구조주의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기보다 “불충분한” 해석이다. 어떤 점에서 불충분한가? 이 문제는 앞으로 소쉬르 연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¹⁴⁾

글을 마무리하면서 소쉬르 읽기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첨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소쉬르 읽기는 반드시 문헌학적인 우회를 필요로 한다. 문헌학적인 우회를 하지 않고 소쉬르를 논한다는 것은 공허한 논쟁에 불과하다. 소쉬르는 오늘날 『일반 언어학 강의』 속에 존재한다기보다 『강의』와 수고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 존재한다.

둘째, 소쉬르의 텍스트는 완성된 텍스트가 아니다. 오히려 완성을 기다리는 텍스트이다. 이런 점에서 ‘소쉬르 읽기’는 다시 쓰기와 진배없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다시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독자의 자유, 즉 해석의 자유는 비단 문자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도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소쉬르 수용의 역사는 구조주의의 역사이다. 우리는 구조주의와 소쉬르와의 깊은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구조주의가 소쉬르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구조주의는 소쉬르에 대한 좋은 해석이지만 완전한 해석은 아니다. 어디에 불충분한 점이 있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참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13) L. Jaeger(1976)는 구조주의의 소쉬르를 과감하게 허구로 단정한다.

14) 필자는 시간이란 주제로 이런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려 하였다(최용호[2000] 참조).

셋째, 새로운 인식론적인 도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 문헌학적인 연구가 단지 문헌학적인 문제에 국한된다면 흥미있는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분데를리는 이런 점에서 문헌학적인 연구를 이론적인 관심사로 승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오늘날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인지주의 패러다임이다. 언어학 대부분의 논쟁은 이 패러다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논쟁에서 소쉬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소쉬르의 텍스트는 특히 독자에 대해 열려 있다. 앞으로 소쉬르 연구는 바로 이런 개방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하게 해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텍스트 해석에 있어 문자성과 역사성 그리고 개방성이 적절하게 융합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김성도(1999),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 한길사.

최용호(2000), 『언어와 시간』, 박이정.

Amacker, R. (1975), *Linguistique saussurienne*, Genève: Droz.

Bouquet, S. (1997), *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Saussure*, Paris: Payot.

Capt-Artaud, M.-C. (1994), *Petit traité de rhétorique saussurienne*, Genève: Droz.

Chiss, J.-L., "Synchronie/diachronie: Méthodologie et théorie en linguistique," *Langage* 49.

Choi, Yong-Ho (1999), *Le Retour à Saussure*, CFS 52, Genève: Droz.

- De Mauro, T.(1967[1972]), *Cours de linguistiques générale* de F. de Saussure, Payot.
- Eco, U.(1992), *Interprétation et surinterprétation*, Paris: P. U. F.
- Engler, R.(1967~68),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t. 1,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1974),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t. 2,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Fehr, J.(1997), *Ferdinand de Saussure, Linguistik und Semiologie*, Frankfurt: Suhrkamp.
- Godel, R.(1957),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ève: Droz.
- Harris, R.(1992[1995]), "My Saussure," *Saussure and Today's Linguistics*, Tokyo.
- Jaeger, L.(1976), F. de Saussures historisch-hermeneutische Idee der Sprache, *LuD* 27.
- (1978), F. de Saussures semiologische Begründung der Sprachtheorie, *ZGL* 6. 1.
- (1983[1986]), "Der saussuresche Begriff des Aposeme als Grundlagendbegriff einer hermeneutischen Semiologie," *Zeichen und Verstehen*, Akten des Aachener Saussure-Kolloquiums, 1983, éd. par Jaeger, Rader Verlag.
- Normand, Cl.(1978)(éd.), *Avant Saussure*, Bruxelles: Edition Complexe.
- Stetter, Ch.(1983[1986]), Linguistische Konsequenzen der Semiologie Saussures, in Jaeger, L(1983).
- (1992), Ferdinand de Saussure, *Sprachphilosophie Philosophy of Language La philosophie du langage* vol. 1,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 Thibaut, P. J. (1997), *Re-reading Sauss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üest, J. (1990), "La Linguistique de la parole," *Sprachtheorie und Theorie der Sprachwissenschaft*, Recueil des Hommages Rudolf Engler.
- Wunderli, P. (1981), *Saussure-Studien* (Exegetische und wissenschaftsgeschichte Untersuchungen zum Werke von F. de Saussure), Tübingen Günter Narr Verlag.
- (1982), "Problèmes et résultats de la recherche saussurienne," *CFS* 36.
- (1988), "Acte, Aktivité und Action bei Saussure," *CFS* 42.
- (1990), *Principes de diachronie*, Frankfurt am Main, Bern, New York, Paris: Peterlang.

Ferdinand de Saussure et son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exte et Interprétation

Yong-Ho CHOI

Depuis Godel(1957), on assiste à l'histoire de la philologie saussurienne dans laquelle Saussure ne cesse de renaître sous diverses formes: Saussure structuraliste, Saussure constructiviste, Saussure idéaliste, Saussure rationaliste etc. La question se pose d'emblée de savoir comment lire ou relire Saussure. Plus précisément quels sont les critères qu'on doit suivre pour mener à bien la relecture de Saussure? Pour donner quelques éléments de réponse à cette question, nous nous sommes référé à U. Eco, qui, dans son livre intitulé *Interprétation et surinterprétation*, aborde cette question de façon originale. Il se propose de distinguer les trois intentions mises en jeu dans la stratégie interprétative: intention de l'auteur, intention du lecteur et intention du texte. Si l'intention de l'auteur est absolument inutile pour la stratégie interprétative, l'intention du lecteur est, par définition, incontrôlable. Dans cette situation, Eco recourt à la notion d'intention du texte. Pour dire bref, l'intention du texte désigne les sens littéraux que tel ou tel texte nous transmet de façon transparente.

Appliquons ces trois intentions à la lecture de Saussure. Depuis sa mort, il est absolument difficile d'illuminer l'intention de Saussure comme auteur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ailleurs, Saussure n'existe pas pour nous comme auteur mais comme texte. Or, l'intention du *Cours* comme texte est également difficile à déchiffrer, d'autant plus difficile qu'il se transmet sous la forme d'un texte brisé: notes personnels, notes des étudiants, etc. Il ne nous reste donc qu'une solution, celle de recourir à l'intention du lecteur. S'il peut y avoir plusieurs Saussure, comme on le dit, c'est parce qu'il y a plusieurs lecteurs. La question est de savoir comment contrôler de façon économique la liberté du lecteur. Pour résoudre ce problème, nous nous sommes proposé d'ajouter aux trois intentions mentionnées ci-dessus l'intention historique dans laquelle tel ou tel texte est reçu. Un texte n'existe pas tout seul mais il existe dans un contexte historique concret. Le contexte historique dans lequel Saussure et son *Cours* se placent, c'est le structuralisme. La lecture structuraliste de Saussure n'est pas une fausse lecture. Cela ne veut pas dire qu'elle a dit toute la vérité. On dirait qu'elle est insuffisante. En quoi consiste cette insuffisance? Voilà la question importante pour les prochaines recherches de Saussure.